

투데이 칼럼

역사적 경험

2차 대전 이후 "대영제국은 해가 지지 않는다."는 영국은 미국에 패권을 넘겨주는 했지만, 수백 년간 세계를 경영하면서 축적한 영국의 지적, 경험적 자산이 쉽게 무너질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전후 반세기 도 안 되어 영국 수상이 미국 대통령의 애안경이라는 조롱을 받더니, 급기야는 브렉시트를 결정해 놓고 이리저리 저러지도 못하는 우스꽝스러운 지경에 놓였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국가 전략을 짜던 넓은 시야와 긴 인맥은 다 어디로 간 걸까?

일본 역시 태평양전쟁에서 패하기는 했지만, 아시아 전역을 침략하고 식민지로 경영하면서 쌓은 지적, 경험적 자산은 소멸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몇 수 앞을 내다보고 치밀하게 전략을 짜는데 한국 정부는 그러지 못했다"는 한국 지식인들의 일본에 대한 경외감은 이런 경험 자산의 격차'를 인식한 데에서도 유래한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아베 정권이 정말 넓은 시야와 긴 인맥'에서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의심스럽다. 그들이 쌓아 두었던 지적, 경험적 자산은 다 어디로 간 걸까?

극우 세력의 일반적 속성은 역사



박 보 경

칼럼니스트 겸 여행작가

적 맥락과 단절된 사고를 하고, 역사적 경험에서 배우려는 의지가 없다는 점이다. 자기들의 욕망조차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기에, 영타리 역사를 만들어 자기 욕망을 충족하려 한다. 그런 자들이 권력을 잡으면, 자기 공동체가 축적한 자산도 다 헛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지금 '아베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축적된 역사적 경험을 기반으로 생각하는 '인간적 사고'가 '마비된' 사람들이다. 역사에 무지하고 역사와 단절된 사람들에 대해 역사학으로 설명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본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행태를 이해하는 데에는 정신분석학이나 심리학이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제안한다.

그리고 "그 때 일본의 식민지가 되지 않았다면 한국인들은 아직도 일반 상놈 따지며 황제 폐하 만세나 부르고 있거나 러시아의 식민지가 되었다가 독립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처럼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을 근대화해 준 일본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사람이 있다. 역사엔 가정이 없으니만큼 대꾸할 가치도 없는 말이지만, 그런 사람이 있기에 그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진다.

"1894년에 의사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동학농민혁명이 어떤 결과를 빚었을지 생각해 보라."
 "러일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했다면 1906년 러시아혁명이 어떻게 됐을지 생각해 보라."
 "1905년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다

면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 가능했는지 생각해 보라."
 "러일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했다면 영국 등 열강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어떻게 했을지 생각해 보라."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지 않았다면, 민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이 일어났을지 생각해 보라."

"그 때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하지 않았다면"이라는 동일한 가정에도,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상반된 추론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당시 한국에서 일어난 일들은 세계사 전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추론하기에에는 변수가 너무 많다. 그러나 "그 때 일본의 식민지가 되지 않았다면 한국은 더 발전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그때 일본의 식민지가 되지 않았다면 한국은 후진 상태를 면치 못했다"는 주장도 모두 무의미하다. 중요한 건 일본 군국주의가 한국인들의 삶과 의식에 남긴 '총체적 영향'을 냉정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다만 그 영향을 '발전'이라는 단어로 하나로 인식하는 사람들에겐 "인간에게 발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따로 던져야 할 것이다.

사설

젊은 여성 일자리도 고민해야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은 전북의 오랜 고민이다. 그런데 지금은 젊은 여성들도 떠나고 있다. 그것은 소식이 전북연구원이 이주 브리핑 때 이미 알려준 바이다. 인구 동향과 관련해서 전북도가 긴장 모드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되는 때이지 않나. 도지사는 저번에 제8회 인구의 날에 간담회의 자리에서 임산부와 다자녀 가구에 큰 관심을 보인 바 있다. 그리고 워라밸 정책을 위해 직원 목소리도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말도 했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늦은 발표가 아니었나 물어보고 싶다.

도내 인구 유출 대다수는 청년들이라 여겼었는데 그게 젊은 생각이었다. 스무살에서 스물네살 사이의 젊은 여성들의 경우는 남성들의 유출보다도 더하다는 보고이니 문제가 심각하다. 전북도는 말 그대로 전북의 인구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야겠다. 그리고 전북도는 이 어려운 때에 도내 젊은이들에게 진짜 희망을 보여줘야겠다. 전북도는 저출산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그에 맞는 정책을 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젊은 여성들이 전북 지역에 눌러 살게 하려면 인구의 날 기념 간담회 때 말했던 그 발언 그대로 구체적인 관

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전북도는 힘을 내서 지금의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은만큼 전력투구해야 한다. 일거리가 산더미라 지칠 때도 있으리라는 짐작이지만 그래도 힘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쪽에 우선순위를 두고 팔소매를 걷어부쳐야 한다. 전북도는 미래 비전을 말했지만 현실은 어려운 것 투성이다. 저번에도 여러 번 지적했거니와 전북도가 문제 해결에 진취적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게 없다면 지금까지 내일도 곤란한 일이 계속될 터이다.

도민의 바람과는 반비례하여 인구가 큰 폭으로 줄고 있으니 난감하다. 전북도가 젊은 여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체코해야 한다. 인구의 날 이벤트에서 도지사가 언급했던 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그래야 한다. 결국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에 신경을 쓴 그 이상으로 젊은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주문이다. 젊은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젊은 여성들의 유출은 가속화 될 터이다. 전북도는 도내 여성 인구의 유출을 두고 일자리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독자제언

점멸 신호, 개인의 인격

깜빡 깜빡이는 점멸신호, 차량의 소등 등이 적은 도로상에 시간대등을 감안 탄력적으로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면서 에너지 절약에도 도움이 되는 목적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한가한 도로상에서는 신호를 무시하고 심지어 어떤 운전자들은 제대로 점멸신호를 숙지하지 못한 일부 운전자들은 심지어 빨간불에 좌회전하는 운전자 등이 대다수다. 점멸신호는 각색마다 각각 다른 의미를 갖는다. 황색점멸 신호는 빨간불과 동일하며 서행의 의미를 갖고, 적색신호는 모든 차량은 정지해야 하는 신호이며 과란불은 주행과 또한 운전자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는 신호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6조2항을 보면 황색점멸등에는 차미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지에 주의하면서 진행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교차로 주변의 상황을 살핀 후

서행해서 통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적색 점멸시에는 도로교통법에서 차미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서 일시 정지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일시정지는 황색점멸 신호 보다 강한 뜻으로 차량의 바퀴가 완전히 도로표면에서 정지 시킨다는 의미이다. 점멸신호를 지키지 않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현행법에서 신호위반으로 징역5년 이하의 금고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있다. 선진 운전문화를 위해서라도 법이 무서워 지키는 것보다 우리 모두의 소중한 약속이기에 나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점멸신호를 확실하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돼 상대방에게 작은 배려의 약속이며, 지금부터라도 생명을 지켜주는 신호를 지켰으면 하는 바람이다. 신영환 고창경찰서경위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싱가포르 저녁 수놓은 설치 미술 '중추 달맞이꽃'



싱가포르 예술가 이문진의 설치 미술 '중추의 달맞이꽃'이 13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릴 중추절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쉐윈 난양 국립 국부기념관에 전시돼 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김제역 코레일 하루 4회 정차에 부처

KTX가 김제역 상하행 정차 방침을 밝혔다. 내달 16일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다. 육식 같아서는 지금 당장 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반가운 소식이다. 도민들은 KTX 측이 김제역 정차 요청에 협조해주기를 바라왔던 터이다. 그렇게되면 김제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보았기 때문이다. 전북 지역이 갈수록 교통 오지가 되고 있는 중에 패싱 대상이 되는 것에 내심 불만이 컸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이번에 KTX 측이 생각을 바꾸어 김제역 정차를 결정했으니 앞날의 변화에 기대가 크다.

KTX가 밝힌 김제역 정차는 하루 4회이다. 용산역 상행선은 오전 7시와 오후 6시 12분이고 목포역 하행선은 오전11시 45분과 오후 7시 20분이다. 역시나 육식 같아서는 하루 6회 정도 정차가 되었으면 하나 그것은 나중에 요구할 일이다. 처음부터 이쪽의 입맛대로 해주기를 바랄 수는 없는 것이기에 김제 시민들이 KTX를 많이 이용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교통객들이 북비게 되면 8회 정차도 요구해

볼 수 있을 터이다. 김제역 하루 4회 정차 소식을 김제시를 위해서도 전북도 전체를 위해서도 밝은 소식이다. KTX는 전라선 증편도 약속했는데 그 역시나 반가운 소식이다. 그것은 KTX가 전북의 동서 교통을 쌍끌이로 발전 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여기 한 가지 말 할 게 있다. 동부권 발전 프로젝트가 다시 공금한 것이다. 전북도는 예전에 여러 번 선언한 게 있다. 동부권 발전핵심 프로젝트로 동부권 철도 건설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그 성취를 위해서 힘내야 한다. 동부권에 대한 발전 관심사가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예전처럼 말풍선 날리기 같은 것이어서는 안 된다. 이제 구체적인 행보로 동부권 발전 프로젝트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 그동안 발전 기대감을 키운만큼 추진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지역간 균등한 발전은 반드시 실현해야 할 이상이다. 전북도는 동서 철도 건설 건물포함한 프로젝트의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해야겠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